

공홀사역-사역지침 및 연혁

1) 온누리교회 공홀사역의 기본목표 및 사역지침

1. 기본목표

1. 각 공홀사역 팀을 예배공동체로 정체성을 확립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2. 공홀사역의 인적 자원은 온누리교회의 성도의 자원봉사에서 충당하여 성도의 신앙성숙을 도모한다.
3. 교회차원의 봉사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역으로 발전한다.

2. 사역지침

1. 사역보다 관계가 우선한다.
2. 결과와 업적보다 마음의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3. 조직과 제도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4. 전통보다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한 사역을 한다.
5. 섬김과 나눔을 원칙으로 한다.
6. 열린 사역을 지향한다.
7. 모든 사역의 기본과 출발은 기도에 있다.

2) 온누리교회 공홀사역의 연혁

1. 온누리교회는 1985. 10월 첫째 주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재정지출의 1/3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즉 헌금의 1/3은 교회 밖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기로 했다. 그리고 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기 전부터 공홀사역이 포함된 국내선교를 시작.
2. 1989년도 국내선교위원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활동.

가정 선교회 / 도시빈민 선교회 / 근로청소년 선교회 / 장애인 선교회 / 군 선교회
농어촌 선교회 / 학원 선교회 / 직장 선교회 / 교도소 선교회 / 의료 선교회
3. 1990년에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중요성을 둔다는 의도에서 국내 선교위원회를 사회선교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조사, 소외계층 거주지역의 현장답사 등 사회 선교에 대한 사역을 강화
4. 온누리교회의 사회선교의 방향을 소외된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를 교회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으로 군포지역을

- 선정하여 1991년 3월에 섬김과 나눔의 집 「하나로」를 개원하여 사역을 시작.
5. 1992년에 「사회선교」라는 명칭을 「금홍사역」으로 변경.
 6. 1993년 1월에 관악구 신림7동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결손가정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교회가 인수하여 「열린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
 7. 용산구 효창동 지역에 있는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의료, 이·미용 봉사 사역을 위해 「예수향기회」를 조직하고 1994년 8월에 사역을 시작.
 8. 서울시로부터 영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임대 아파트 지역인 번 2동에 있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1995년 3월부터 「번동 코이노니아」사역 시작.
 9. 1996년 10월부터 용산구 남영동과 서빙고동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면학을 위한 공부방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남영동 청소년공부방과 서빙고동 청소년공부방) 청소년 및 노인급식 사역을 시작하였다.
 10. 1999년 11월 1일부로 하나로, 열린이웃, 번동코이노니아, 남영동 및 서빙고 노인무료 급식, 및 예수 향기회는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으로 사역이 이관되었다.

3) 온누리교회 금흥사역 조직표

1. 온누리복지재단 사역

기 존 사 역

- 1. 번동코이노니아
- 2. 하나로
- 3. 열린이웃
- 4. 예수 향기회
- 5. 남영동 공부방
- 6. 중랑구 노인종합복지관 지원

신규계획사업

- 1. 노인요양시설
- 2. 청소년 쉼터 설치 추진
- 3. Group Home 4곳 설치 추진
- 4. 장애인 근로재활시설 설치 추진
- 5. 청소년 사업관 설치 추진
- 6. 협력 장학사업
- 7. 호스피스사역

2. 교회 내 공흥사역

- 1. 공흥본부 사역
- 2. 교도소 사역
- 3. 나눔장터
- 4. 농어촌 선교 사역
- 5. 의료 선교 사역
- 6. 장애인 선교 사역
- 7. 누리사랑
- 8. 한마음 코이노니아
- 9. 사랑부